

### 3. 자금흐름

#### 〈글로벌동향〉

- 2016년 상반기 글로벌 자금유입은 선진국, 신흥국 모두 소폭 증가세로 전환
-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국가간 은행자금 이동은 2016년 이후 소폭 증가
- 2016년 하반기 글로벌 펀드자금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흐름이 변화

#### 〈국내동향〉

- 2016년 3/4분기 국내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대비 감소로 전환
- 조달원천별로는 장기차입금과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회사채 조달 규모는 감소

### 가. 글로벌동향

#### 1) 국제투자자금 유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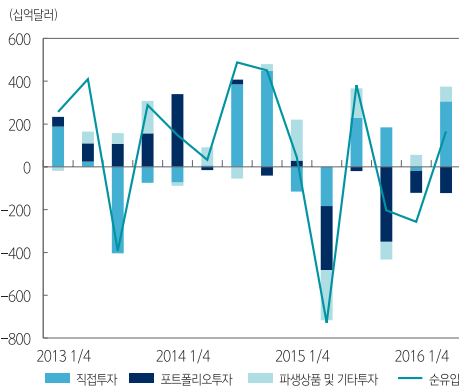
- 2016년 2/4분기말, 전세계 43개국<sup>1)</sup>의 국제투자자금 순유입(「부채-자산」 잔액) 규모는 3.9조달러로 2015년 4분기 이후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
  - 최근 3년간 국제투자자금 순유입 규모는 주요국의 통화완화 및 저금리 기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4년말 달러강세로 소폭의 감소세로 전환
  - 2015년 4/4분기 이후 총자본 유입과 유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6년 2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국제투자자금 순유입 규모 증가율은 1.05%에 그침
  - 형태별로 살펴보면 FDI(1,600만달러 유출)는 2015년 4/4분기 이후 순유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투자 순유입 규모(10.5조달러)는 감소, 파생상품 및 기타투자(2.4조) 순유입은 증가

1) 2016년 2분기까지 IIP자료가 공개된 국가를 대상으로 선진국 18개국 및 신흥국 25개국으로 구성. 선진국에는 오세아니아 2개국, 유럽 11개국, 북미 2개국, 아시아 3개국 등 총 18개국을 포함하며, 신흥국은 중동 3개국, 유럽 11개국, 남미 6개국, 북미 1개국, 아시아 4개국 등 총 25개국을 포함

□ 국제투자자금 순유입을 변동분(전기대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유입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과 신흥국의 자본 흐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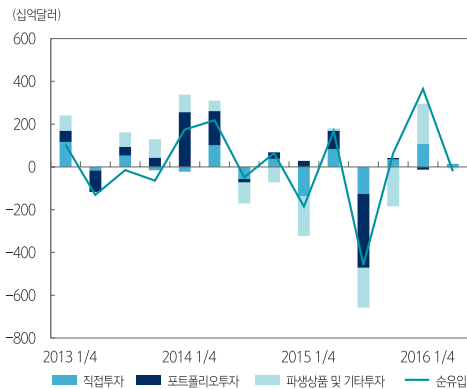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선진국은 유럽계 은행 신용위험 부각 등으로 전기에 이어 순자본유출이 발생하였으나 각국의 정책대응 및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기 개선 움직임으로 2/4분기 순자본유입으로 전환
- 신흥국은 2016년 이후 중국의 자본유출이 감소하며 1/4분기 순자본유입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2/4분기에는 순자본유출로 전환

선진국 순자본유입 추이



주 : 순자본유입은 「부채-자산」의 전기대비 변동분을 의미하며, 자산항목에서 외환보유액은 제외  
자료: IMF, IIP, 각국 중앙은행

신흥국 순자본유입 추이



주 : 순자본유입은 「부채-자산」의 전기대비 변동분을 의미하며, 자산항목에서 외환보유액은 제외  
자료: IMF, IIP, 각국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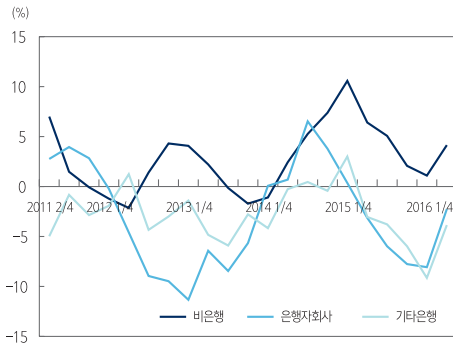
## 2) 국가간 은행자금이동

□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은행을 통한 국가간 자금이동규모는 2016년 들어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

- 2016년 1/4분기, 2/4분기 연속 은행을 통한 국가간 자금이동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는 그간의 감소폭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미미한 수준
  - 은행을 통한 국가간 자금이동은 2016년 1/4분기 전기보다 4,170억달러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년대비 4.5% 감소한 수준

- 2016년 2/4분기 전기보다 4,890억달러 증가하였으나 이는 은행자회사간 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
- 통화별로 살펴보면 2016년 1/4분기 유로화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4분기 브렉시트 투표 및 유럽은행 부실 우려 등으로 유로화 대출이 감소하고 달러화 대출이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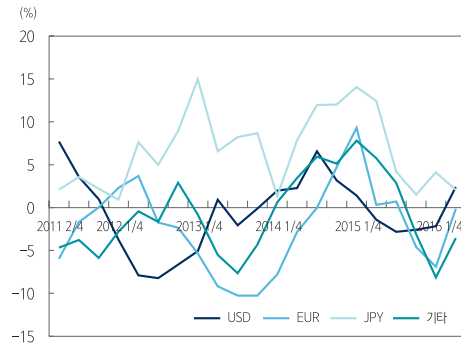
부문별 자금이동 변화율 추이



주 : 직전 4분기 분기대비 변화율을 기하평균으로 계산

자료: BIS

통화별 자금이동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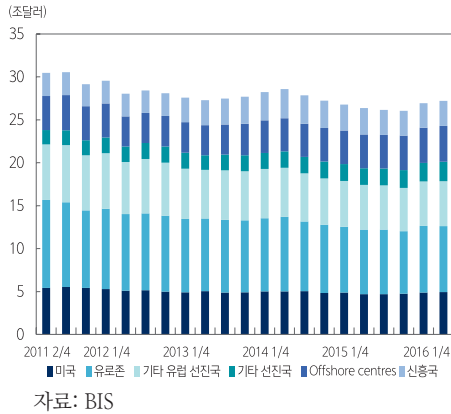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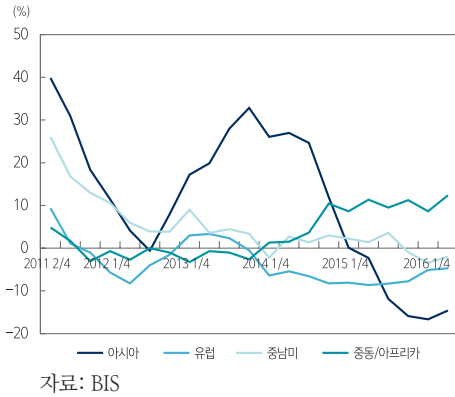
####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미약하게나마 국가간 은행자금 유입 규모가 확대

- 2016년 1/4분기 유로존으로 7.8조달러가 유입되며 그동안의 자금 경색이 해소되는 듯하였으나 2/4분기에 다시 유입이 감소
- 달러강세에 힘입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은 2015년 3/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6년 2/4분기 4.9조달러 규모
- 3분기 연속 감소하던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2016년 2/4분기 중국으로의 대출 증가(전분기대비 8%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지역별 자금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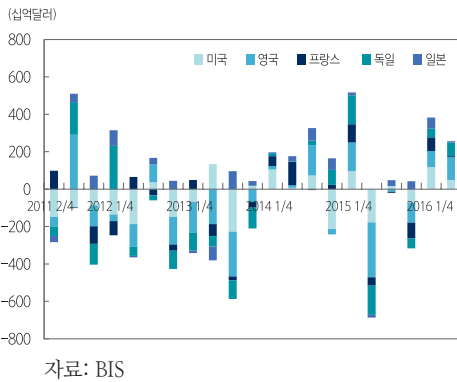
신흥국 지역별 자본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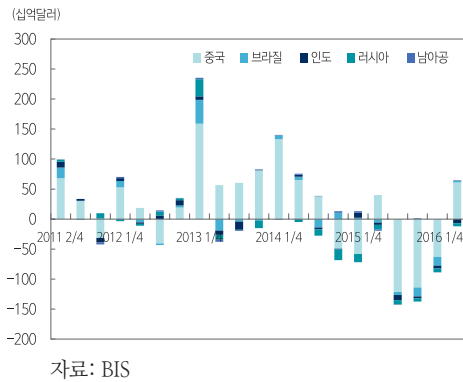
□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6년 2/4분기말 일본과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은 전기대비 감소하였으며 중국을 비롯한 남미,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유입은 증가

- 2016년 상반기부터 엔화강세 및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등에 따라 일본과 미국으로의 은행자금 유입 감소
- 중국은 2016년 초 외환유입촉진조치 도입 등으로 2016년 2/4분기 은행자금 유입 규모가 증가

주요 선진국 분기별 증감추이



주요 신흥국 분기별 증감추이



## 3) 펀드자금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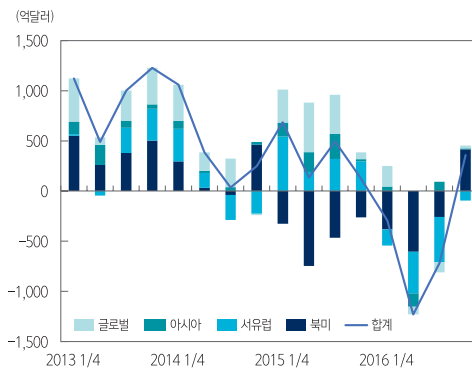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부터 선진국 주식펀드는 유럽 은행 불안, 브렉시트 여파 등으로 3분기 연속 순유출을 지속하였으나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으로의 대량 자금 유입에 힘입어 2016년 4/4분기 순유입으로 전환

- 2016년 3/4분기부터 북미 주식펀드로 대량(전기대비 57% 증가)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트럼프 당선 이후 4/4분기 북미 주식펀드는 순유입으로 전환
- 서유럽은 브렉시트 결정, 도이치은행 및 이탈리아 은행 불안 등으로 2016년 하반기에도 자금 유출이 지속되었으나 4/4분기 들어서면서 유출 규모가 감소

□ 2016년 상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신흥국 주식펀드는 트럼프 당선 이후 급격한 자금 유출이 발생하며 2016년 4/4분기 순유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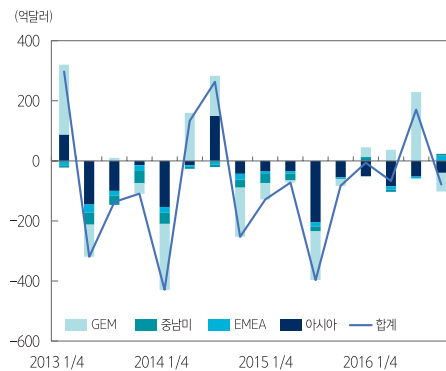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신흥국 주식펀드는 신흥국 성장률 전망 개선 및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순유입 전환
-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강세 및 미·중간 갈등 예상 등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 주식펀드가 순유출로 전환(3/4분기 170억달러 순유입 → 4/4분기 78억달러 순유출)

선진국 주식펀드 유출입 추이



자료: EPFR,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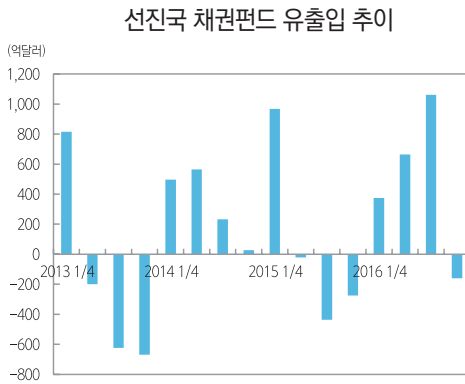
신흥국 주식펀드 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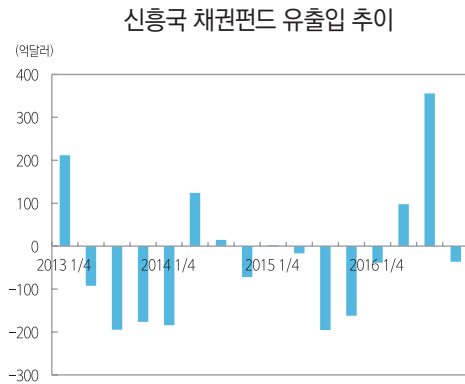
자료: EPFR, 국제금융센터

□ 글로벌 채권펀드는 2015년 하반기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및 안전자산 투자 선호 등에 따라 자금 유입이 지속되다 2016년 4/4분기 미 금리인상 움직임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순유출로 전환

- 2016년 3/4분기 미 금리동결로 인한 단기 불확실성 완화 및 글로벌 저금리 기조로 선진국 채권펀드와 신흥국 채권펀드 모두 순유입세를 지속
- 2016년 4/4분기 미 금리인상 전망 및 미·중간 갈등 우려 등으로 선진국 채권펀드와 신흥국 채권펀드 모두 순유출로 전환



자료: EPFR, 국제금융센터



자료: EPFR,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주현수 (02-3771-0837, joo@kc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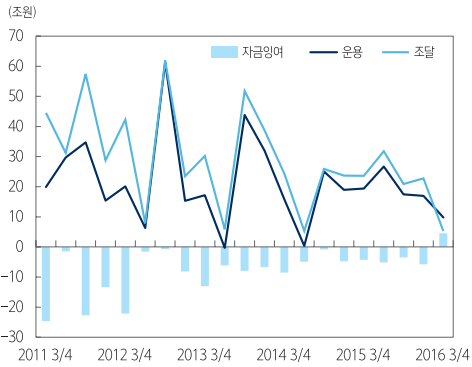
선임연구원 김보영 (02-3771-0638, bykim98@kcmi.re.kr)

## 나. 국내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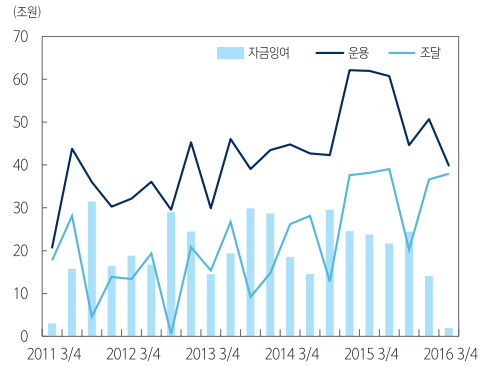
### 1) 경제주체별 자금의 조달과 운용

- 2016년 3/4분기 전체 자금조달과 운용 규모는 183.6조원으로 전분기대비 증가세로 전환
  - 연간 자금조달과 운용 규모는 2011년 556.8조원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4년 811.9조원, 2015년 839.8조원, 2016년 상반기 498.0조원을 기록
  - 2016년 3/4분기 전체 조달 및 운용규모는 가계부문과 국외부문의 자금잉여 축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비금융법인기업과 정부부문의 자금잉여 증가로 전분기대비 확대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자금조달은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전분기대비 감소 전환
  - 기업의 자금조달은 2015년중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1/4분기 증가 전환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자금조달은 예금취급기관 차입금 등 간접금융의 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직접금융과 국외조달(직접투자)은 축소 전환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자금운용 규모는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축소
  
- 2016년 3/4분기 가계의 자금운용 규모는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보험 및 연금, 현금통화와 예금, 채권의 규모가 전분기대비 축소
  - 분기별 가계의 자금잉여 규모는 2016년 3분기 연속 감소세
  - 가계의 자금조달은 저금리 기조가 본격화된 2013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4년 78.3조원, 2015년 127.6조원, 2016년 상반기 56.8조원을 기록
    - 2016년 3/4분기 가계의 자금조달은 금융기관 차입 규모가 2분기 연속 증가세
  - 자금운용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2013년 153.0조원, 2014년 171.8조원을 기록한 후 2015년 226.9조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95.3조원을 기록
    - 2016년 3/4분기 가계의 자금운용은 채권과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축소되어 전분기대비 감소
  
- 정부부문의 자금조달 규모는 재정증권 상환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연속 축소
  - 정부 자금조달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예치금을 중심으로 자금운용이 증가하여 자금잉여 규모 18.7조원으로 전분기(10.6조원)대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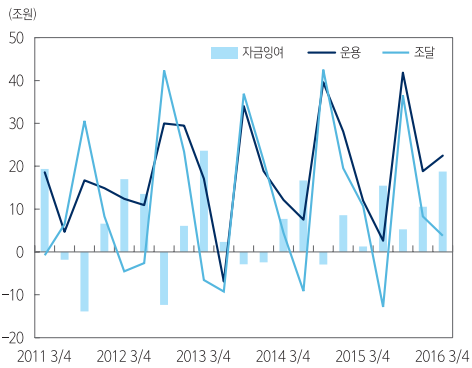
기업부문 자금조달 및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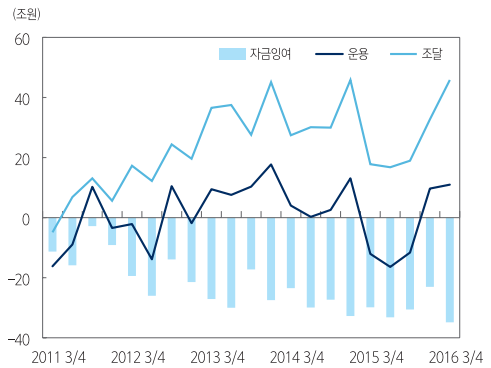
가계부문 자금조달 및 운용



정부부문 자금조달 및 운용



국외부문 자금조달 및 운용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 2) 기업의 자금조달

□ 기업의 상거래신용을 제외한 자금조달은 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15년 한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3/4분기 자금조달 규모는 2분기 연속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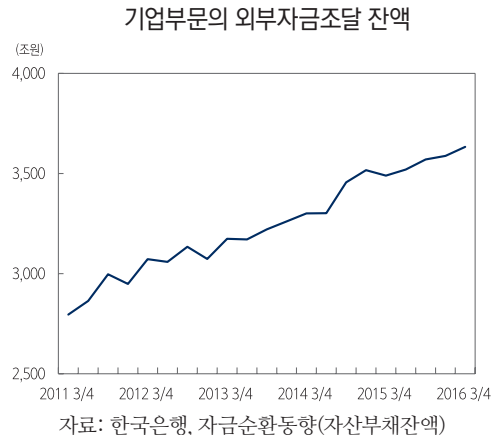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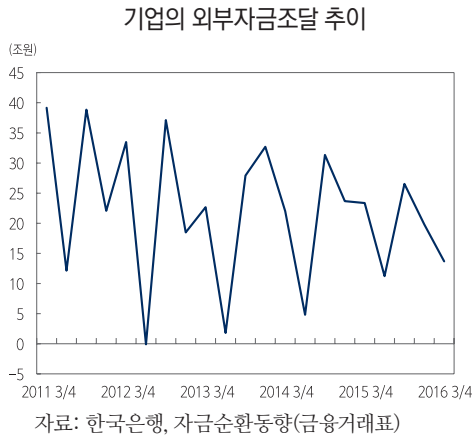
— 기업의 연도별 외부자금조달 추이를 보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후 2014~2015년 소폭 회복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규모는 회사채 순상환 등의 영향으로 축소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잔액은 4분기 연속 증가하여 3,633.4조원을 기록

-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잔액은 2015년 상반기 급증한 후, 당해 하반기 잔액 규모가 다소 정제되는 모습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잔액은 전분기대비 1.2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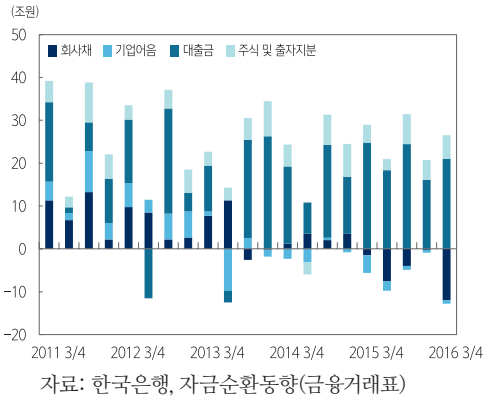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기업 조달원별 자금조달 규모를 보면 장기차입금과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전 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회사채 조달규모는 감소

- 2013년 하반기 시작된 회사채 조달규모 감소는 2014년 4/4분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5년 3/4분기 이후에는 대체로 하락세
- 2016년 3/4분기 회사채 규모는 회사채 순상환 등으로 인하여 대폭 축소되었고, 주식 및 출자지분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대비 증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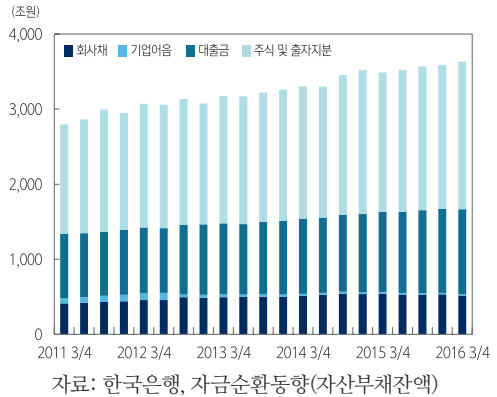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자금조달 월별 잔액 비중을 살펴보면, 대출금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회사채의 비중은 감소

- 대출금은 2014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3/4분기 전체 자금조달 중 대출금의 비중은 31.2%를 기록
- 3/4분기 주식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상승 전환하며 전체 자금조달 중 54.1%를 기록

자금조달 수단별 구성 추이



자금조달 수단별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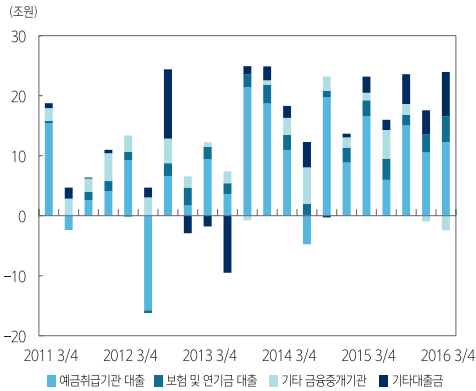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금 조달은 전분기대비 증가

- 전체 대출 규모중 예금취급기관 대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험 및 연기금을 통한 대출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
- 2016년 3/4분기 대출금 조달 규모는 전분기대비 증가한 21.5조원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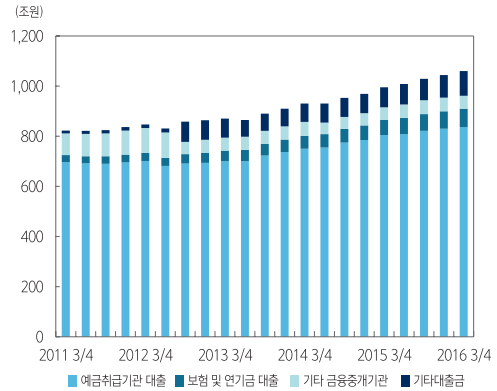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규모는 전분기대비 확대되었으나 증가폭은 다소 정체되는 모습

-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4/4분기 1,000조원을 상회
- 2016년 3/4분기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전분기대비 1.45% 증가한 1,059.3조원을 기록

금융기관별 기업대출금 추이



금융기관별 기업대출금 잔액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회사채 순상환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축소

- 기업의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기별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2014년 이후 그 규모가 급감하는 모습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회사채 순상환으로 인하여 감소 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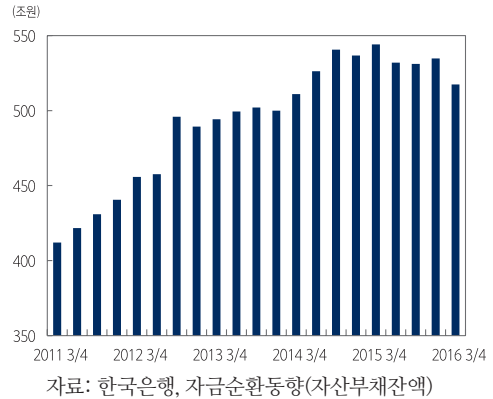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채권 조달 잔액은 전분기대비 감소한 517.4조원을 기록

- 기업의 채권 조달 잔액은 2015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를 지속
- 2016년 3/4분기 채권 잔액은 전분기대비 3.2% 감소한 517.4조원으로 2014년 3/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기업의 채권 발행 추이



기업의 채권 조달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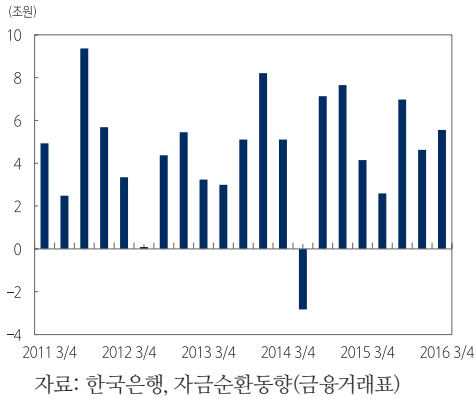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주식 및 출자지분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대비 증가한 5.56조원을 기록

- 주식 및 출자지분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15년 한해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6년 1/4분기 증가세로 전환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해당 분기내 주가상승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분기대비 약 2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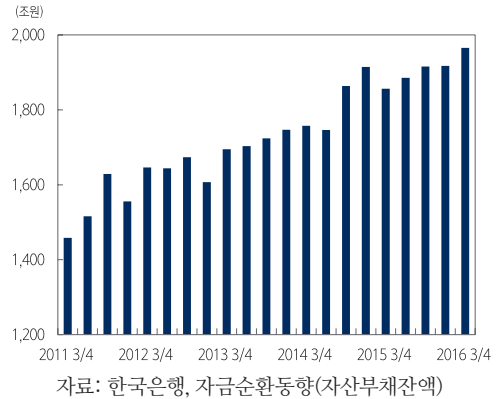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잔액은 4분기 연속 증가하여 1,965.5조원을 기록

-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잔액은 대체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 까지 그 규모가 다소 정체 되는 모습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잔액은 2015년 4/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분기대비 2.5% 증가

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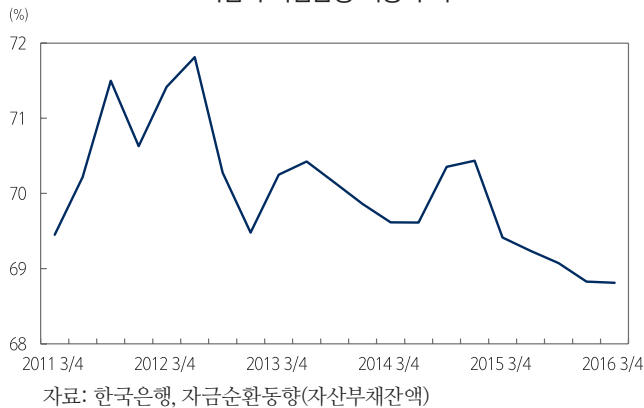
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잔액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직접금융 비중은 5분기 연속 하락하여 68.81%를 기록

- 직접금융 비중은 회사채 시장 경색의 영향으로 2014년중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2015년 상반기 상승 전환하였으나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하락세
- 2016년 3/4분기 기업의 직접금융 비중은 5분기 연속 70%대를 하회하였으며 2016년 3/4분기 68.81%로 2010년 3/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기업의 직접금융 비중 추이



□ 2016년 3/4분기 기업의 CP 및 전단채 발행 실적은 전분기대비 감소한 345.19조원을 기록

— 기업의 CP 및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은 2013년 전자단기사채 제도 도입 후 전단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CP시장을 대체

- 전단채 발행규모는 전단채 제도 도입 후 2015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증가한 이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기업의 전단채 발행 규모는 2015년 3/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250조원을 상회하였으며, 2016년 3/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축소 전환
- 2016년 3/4분기 기업의 CP발행은 2분기 연속 증가하여 82.18조원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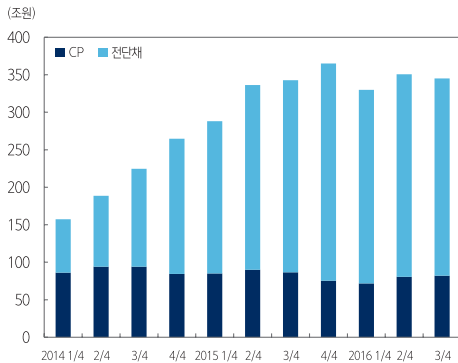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CP 및 전단채 잔액은 3분기 연속 증가하여 176.8조원을 기록

— 전단채 잔액은 2014년 1/4분기 15.6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 CP 잔액은 2015년 한해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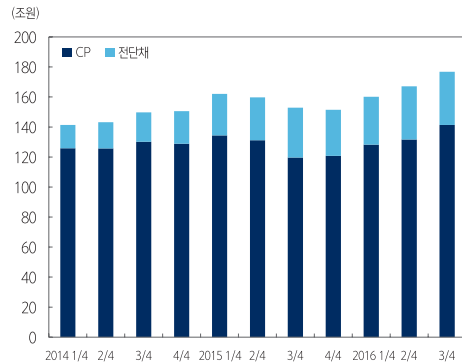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전단채 잔액은 전분기와 비슷한 35.4조원, CP 잔액은 전분기대비 증가한 141.4조원을 기록

CP·전단채 발행실적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CP·전단채 잔액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02-3771-0631, pkkim@kcmi.re.kr)

연구원 표영선 (02-3771-0831, ellie@kcmi.re.kr)

## 자금흐름 주요 이슈(1): 자본유출 우려에 따른 아시아 주요국 취약성 검토

## □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신흥국의 자본유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자본유출 위험성을 검토

-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근간으로 하여 신흥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진행될 것으로 평가
  - 재정지출 확대, 금융규제 완화, 보호무역 강화 등이 부각되면서 미국 주식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대폭 유입
  - 또한 reshoring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신흥국에 대한 FDI 자금 유입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어 신흥국의 대내외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신흥시장국 채권펀드 자금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국의 경기상황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화될 가능성
- 현재 경기상황,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대외부채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 국가(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한국 등 9개국)를 대상으로 분석

## □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등 3개국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의 성장률은 5% 이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태국과 한국은 3%대로 전망
-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6년 4월 전망자료 대비 2017년 경제성장률이 0.2%p 하향 조정되었으며, 캄보디아와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소폭 하향조정됨

## □ 재정정책의 운용 및 경상수지/GDP 등 유동성 요인을 검토한 결과 정부부채 부문에서는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높은 수준이며,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

-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은 일반정부부채/GDP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외화자금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

□ 대외부채 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

- 말레이시아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80.3%에 달하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말레이시아의 GNI 대비 총대외부채 비중도 66.3%로 다른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

□ 종합적으로 보면 아시아 지역 국가의 자본유출에 대한 취약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 중 말레이시아가 대외부채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말레이시아는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 재정정책의 운용 제약, 대외부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취약성이 높은 수준
- 그 이외 아직 경제발전이 낮은 수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와 높은 수준의 대외부채로 인해 자본유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

자본유출에 대한 국가별 취약성 비교

(단위: %p, %)

	경제성장률 전망수정	경제성장률	일반정부 부채/GDP	경상수지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대외부채/ GNI
말레이시아	-0.20	4.6	56.6	1.2	80.3	66.3
베트남	0.00	6.2	62.0	0.4	42.4	42.5
인도네시아	0.00	5.3	27.5	-2.3	36.7	37.0
캄보디아	-0.04	6.9	33.0	-10.2	18.4	54.6
태국	0.05	3.3	43.6	9.7	32.8	35.2
중국	-0.03	6.2	46.3	2.4	27.0	13.1
인도	0.11	7.6	68.5	-1.4	23.1	23.4
한국	0.17	3.0	38.9	7.2	29.1	32.8
필리핀	0.50	6.7	33.4	1.8	18.7	22.0

주 : 경제성장률 전망수정치는 IMF의 2016년 10월 발표치와 2016년 4월 발표치의 차이

자료: IMF, Worldbank, 한국은행



## 자금흐름 주요 이슈(2): 단기금융시장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국내 단기금융시장이 Repo 및 전자단기사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율체계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sup>1)</sup>

— 단기금융시장은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매개로 한 금융회사 간 단기 유동성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콜, RP, CD, CP, 전자단기사채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존의 단기자금거래는 차입조건이 유리한 무담보 콜거래에 편중되는 경향
- 이는 신용경색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2011년 이후 RP 시장 활성화와 지표금리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무담보 콜거래 중심의 단기금융시장이 담보거래인 RP와 전자단기사채 거래 중심으로 형성
- 이러한 단기금융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RP거래의 대부분이 익일물<sup>2)</sup>에 편중되어 있어 기일물 시장의 부재로 인한 자금조달 제약이 따를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체계적 규율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기일물 RP 거래 확대와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 할 계획

- RP 기일물 거래 확대를 위하여 일반담보채권 대체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확대할 예정
- 또한 거래정보에 대한 보고·공시 체계와, 단기금리의 산출과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

□ 향후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관리 방안과 법적 규율근거를 구축하여 시장안정성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RP시장의 기일물 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다양한 만기구조의 상품과 금리 구조 형성이 가능

- 익일물 차입 편중이 완화되어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축소 될 수 있으며, 만기별 금리구조가 형성될시 이를 기반으로 한 대출·파생상품이 출시될 수 있음
- 또한 지표금리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여 단기금리의 신뢰성을 제고

1) 금융위원회, 2016.09.01.

2) 익일물 거래는 담보가치 급락 시 해당 기관의 유동성리스크를 유발해 시장안정성을 저해 할 수 있음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 과제

내용	개선방안	조치사항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	담보채권 대체 절차 간소화	예탁결제원의 일반담보채권 시스템 개선
	RP 거래 수수료체계 합리화	기일물 RP거래 촉진 방향으로 재설계
	RP 시장 참여자 요건 개선	일임계약, 연기금, 공공기관 등의 참여 허용
	PD, OMO 대상기관의 시장조성기능 강화	PD, OMO 대상기관 평가기준에 기일물 RP거래 실적 반영
	증권금융의 시장조성기능 강화	증권금융에 대해 한시적으로 콜시장 자금 차입 및 운용 허용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정비	거래정보 등에 대한 보고·공시체계 마련	거래관련 주요사항을 일간 공시하고 관계당국에 보고
	금리산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	산정절차, 만기, 호가제출 기관, 내부통제과정 등을 공시
	기타 단기금융시장 관련 규율사항	인프라 강화
증권사의 익일물 중심	증권사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증권사의 1일 유동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PD, OMO 대상 증권사의 콜시장 1일 차입 한도 축소	콜차입 풀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1일 차입한도 축소